



## 무한한 가치를 창출하는 포장산업에 매력

강동호 /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 3학년

“부족한 저를 이렇게 뽑아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. 포장업계 및 포장학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한용교포장인상의 이념에 걸맞게 이번 기회를 발판삼아 더욱 정진하는 학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”

제9회 한용교포장인상 장학생 부문으로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 3학년인 강동호 학생이 수상했다.

처음 포장을 접할 때 매우 생소한 분야였다는 강동호 학생은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가 국내 유일한 최초 4년제 대학이라는 것과 여러 학문이 접목 되어있는 응용학문이라는 점 때문에 전공과목에서 주저없이 이 학과를 선택했다.

“포장산업의 가장 큰 매력은 미지의 분야라는 것”이라고 강조하는 그는 “제품의 질에 비해 포장은 소홀히 되어 왔던 것은 사실”이라며 “작은 변화만으로도 무한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점이 포장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매력이라고 생각한다”고 말했다.

완충포장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강동



호 학생은 “완충포장은 제품을 효율적으로 손상없이 보호하여 소비자에게 전달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학문”이라며 “제품 전체 생산라인에서 가장 먼저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”고 말했다.

즉 완충포장이 적절하지 못해 과대, 과소 포장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그는 이 분야야 말로 무한한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는 것이다.

강동호 학생은 졸업 후 미시간 주립 대학원에서 물류, 완충 분야에 대해 공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.

또한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산업전문요원으로 활동한 뒤 박사학위를 받는 등 패키징 관련 공부를 끝까지 해 보는 것이 소망이라고 포부를 밝혔다. 강동호 학생은 포장관련 단체가 학생들이 현장실무를 배우며 지식을 쌓도록 배려해줄 길 바라고 있다.

강동호 학생이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포장산업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는 그날까지 그의 행보에 관심이 가고 있다. ☐

이한얼 기자